

202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성경: 살전 4:15-18, 5:16-18, 살후 2:1-12, 단 2:28, 9:27

[살전 4:15-18]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¹⁶⁾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¹⁸⁾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2:1-12]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²⁾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도 마십시오. ⁽³⁾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⁴⁾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⁵⁾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거듭하여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⁶⁾ 이제 여러분은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⁷⁾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⁸⁾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⁹⁾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와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¹⁰⁾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¹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¹²⁾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단 2:28] 그러나 하늘들에는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왕께 알려 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머릿속에 나타난 이상들은 이렇습니다.

[단 9: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치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 I.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두 서신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관한 빛 아래서 쓰였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살후 2:1-12.

[살후 2:1-12]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²⁾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도 마십시오. ⁽³⁾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⁴⁾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⁵⁾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거듭하여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⁶⁾ 이제 여러분은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⁷⁾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⁸⁾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⁹⁾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와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¹⁰⁾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¹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¹²⁾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A. 데살로니가전서의 매 장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것은 저자인 바울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매력과 격려와 목표와 경고로 삼아,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고 일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돌봄 아래 있는 믿는 이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 살전 1:10, 2:19, 3:13, 4:15-18, 5:23.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살전 2: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살전 3:13]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전 4:15-18]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¹⁶⁾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¹⁸⁾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 B. 우리는 하늘들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시대에서 어떤 긍정적인 운명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생활이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임하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붙잡아 주고 지켜 준다 — 살전 1:10, 살후 2:1, 8, 벵전 1:1, 2:11, 히 11:13, 창 13:3-4, 18.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살후 2:1]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살후 2:8]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벤전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져 사는 체류자들,

[벤전 2:11]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히 11: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창 13:3-4] 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벧엘 부근, 곧 자기가 처음에 천막을 쳤던 벧엘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⁴⁾ 그곳은 아브람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창 13:18]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 II. '오심'에 대한 헬라어(파루시아)는 '임재(臨在: 나타남, 와서 있음, 함께함)'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될 것이다. 이 파루시아는 대환난 전에 있을 사내아이의 휴거(계 12:5)와 첫 열매들의 휴거(계 14:1-4)로 시작해서, 대환난 끝에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마 24:27, 30, 살후 2:8, 유 14)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4:1-4]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²⁾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³⁾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⁴⁾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마 24:27]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24: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살후 2:8]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유 1:14] 아담의 칠 대손 에녹도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셔서,

- A. 삼 년 반 대환난 이전에, 믿는 이들 중 이기는 이들은 하늘들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파루시아) 안으로 휴거될 것이다 — 계 12:5-6, 14:1-5, 눅 21:34-36, 마 24:36-44.

[계 12:5-6]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⁶⁾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습니다.

[계 14:1-5]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²⁾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³⁾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⁴⁾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⁵⁾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눅 21:34-36]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덮고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³⁵⁾ 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³⁶⁾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마 24:36-44]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³⁷⁾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⁴⁰⁾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¹⁾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²⁾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⁴³⁾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⁴⁴⁾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B. 다니엘서 9장 27 절에 나오는 마지막 이레의 후반부인 삼 년 반 대환난의 마지막 때에, 죽고 부활한 믿는 이들과 살아 있는 믿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공중에 있을 그리스도의 임재(파루시아) 안으로 휴거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6 절과 17 절은 이 휴거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4 장 14 절부터 16 절까지에 나오는 곡식을 거두는 것과 일치한다.

[단 9: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치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살전 4:16-17]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계 14:14-16]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¹⁵⁾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¹⁶⁾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 III.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둑처럼 은밀하게 오실 것이고 그분의 보물인 그들을 몰래 훔쳐서 하늘들에 있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고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단 10:19, 마 24:42-44, 25:13, 계 19:7, 22:20.

[단 10: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마 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⁴³⁾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⁴⁴⁾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25:13]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 A.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여전히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항상 격려로 삼아야 한다 — 살전 5:1-11, 딤후 4:1, 6-8, 눅 12:16-20.

[살전 5:1-11] 그러나 형제님들,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²⁾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³⁾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⁴⁾ 그러나 형제님들,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닥치지 못할 것입니다. ⁽⁵⁾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⁶⁾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⁷⁾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⁸⁾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씩시다. ⁽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¹⁾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 오던 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축하십시오.

[딤후 4:1]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딤후 4:6-8]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⁷⁾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눅 12:16-20]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¹⁷⁾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¹⁸⁾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겠다.’ ⁽¹⁹⁾ 그리고 내 혼에게 ‘혼야,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라고 말해야겠다.” ⁽²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 B.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살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그분의 표현이 되고 한길, 곧 신성한 역량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가져야 한다 — 렘 32:39, 31:33-34.

[렘 32:39] 나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렘 31:33-34] 그러나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부들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³⁴⁾ 그들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C. 우리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 골 3:16, 신 17:18-20, 시 119:15-16, 딤후 3:16-17.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신 17:18-20]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책에 베껴 써서, ⁽¹⁹⁾ 그것을 곁에 두고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율례를 지키고 준행함으로써 여호와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 ⁽²⁰⁾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않고, 그가 계명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오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시 119:15-16]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¹⁶⁾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렵니다.

[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¹⁷⁾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 D.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야 한다 — 단 6:10, 9:17, 왕상 8:48, 비교 롬 1:21, 25.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단 9:17] 오, 저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왕상 8: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롬 1:21]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롬 1: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 E.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살전 2:1-12, 19-20, 5:12-15, 빌 1:22-26.

[살전 2:1-12]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²⁾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³⁾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⁶⁾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⁷⁾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⁸⁾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⁹⁾ 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¹⁰⁾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¹¹⁾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¹²⁾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전 2:19-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²⁰⁾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살전 5:12-15] 형제님들, 우리가 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¹³⁾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사이에서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¹⁴⁾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 권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¹⁵⁾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추구하십시오.

[빌 1:22-26]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²³⁾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지만, ⁽²⁴⁾ 내가 육체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²⁵⁾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²⁶⁾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F.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으며, 내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과 동역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분의 원수에게 수치가 되는 생활이다 — 마 25:13, 골 4:2, 살전 5:16-18.

[마 25:13]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 4: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 G. 우리는 함께 노예 된 이들을 때리거나 술꾼들과 어울려 마시거나 주님의 은사를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온 땅에 왕국 복음의 진리를 확산해야 한다 — 마 24:14, 45-51, 25:25.

[마 24:14]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마 24:45-51]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⁴⁶⁾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⁴⁷⁾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⁴⁸⁾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⁴⁹⁾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⁵⁰⁾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⁵¹⁾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 25:25]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하자,

- H. 우리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탄의 지치게 만드는 술책에 대항해 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에 의해 살고 행하고 일해야 한다 — 계 3:10, 단 7:25, 살전 1:3.

[계 3: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단 7:25]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살전 1: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IV. 우리는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보아야 한다 — 마 24:1-3.

[마 24:1-3]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 드리자, ⁽²⁾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³⁾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아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A. (대환난의 마지막 삼 년 반 기간이 곧 시작될 때인) 이 시대의 끝에 대한 가장 큰 징조는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 마 24:14, 계 6:2.

[마 24:14]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계 6:2]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B. 주님의 오심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징조는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기적으로 한 나라로 복원된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끝에 대한 징조이다 — 마 24:32-35, 렘 24:2, 5, 8.

[마 24:32-35]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³³⁾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³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³⁵⁾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렘 24: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었으나,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렘 24:5]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내어 쫓겨 간 유다 사람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렘 24:8]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이 땅에 머무는 예루살렘의 남은 이들과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C.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 살후 2:3, 7.

[살후 2:3]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몰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1.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 요일 3:4.

[요일 3:4]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마다 불법을 일삼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2.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오늘날 민족들 사이에서 또한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 즉 미혹하는 활동적인 능력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신다 — 살후 2:11.

[살후 2: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3. 이와 같이 우리는 이사야서 5장 20 절이 거짓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4. 이 시대의 마지막 삼 년 반 기간인 대환난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적그리스도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 곧 그 자신의 형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과 그 자신 둘 다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마 24:15, 단 9:27, 계 13:14, 14:9, 11).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될 것임을 보여 준다(살후 2:4).

[마 24:15] 그러므로 신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단 9: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치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계 13:14]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계 14:9] 또 다른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계 14:11]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마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살후 2:4]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 D.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는 홍수 이전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생활 상태가 주님의 오심과 대환난 전에 사람들이 처하게 될 위험한 생활임을 보여준다 — 마 24:3, 21, 27, 37, 39, 눅 17:26-27.

[마 24:3]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아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마 24:21] 그때에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 24:27]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24:37]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 24:39]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7:26-27]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²⁷⁾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 E.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는 그분을 믿는 많은 이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 눅 18:8.

[눅 18: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실재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딤펴전 1:4). 신약에 있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롬 1:16-17, 갈 2:20, 엡 3:17, 막 11:22, 눅 18:8).

[딤펴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롬 1:16-17]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¹⁷⁾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막 11:2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눅 18: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2. 믿음은 실질화하는 능력이며 이 능력에 의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에게 실질을 부여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한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증명이다 — 히 11:1.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3. 우리가 주목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고후 4:18).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 생활이며,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회복하는 것이다(롬 8:24-25, 히 11:27, 벧전 1:8, 갈 6:10).

[고후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롬 8:24-25]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²⁵⁾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히 11:27]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벧전 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갈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니다.

- F.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또 하나의 징조는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 마 24:12, 계 2:4.

[마 24: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계 2: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 G. 마지막 때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는 부를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이다 — “여러분은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 약 5:3.

[약 5: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녹이 여러분을 유죄판결 할 증거가 될 것이며, 그 녹은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1.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 마 16:27.

[마 16: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마지막 날들에는 전례 없는 쾌락주의와 함께 물질적인 향락과, 정욕으로 가득한 방종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 약 5:1-6, 비교 스 5:5-11.

[약 5:1-6] 자, 부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두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²⁾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³⁾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녹이 여러분을 유죄판결 할 증거가 될 것이며, 그 녹은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⁵⁾ 여러분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자신을 쾌락에 맡겼으며,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⁶⁾ 여러분은 의인을 죄가 있다고 판결하여 죽였으나, 의인은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스 5:5-11]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 내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눈을 들고서, 나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⁶⁾ 내가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아오는 이것은 에바 그릇입니다.” 그가 또 말하였다. “이것이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모양입니다.” ⁽⁷⁾ (그러자 남 뚜껑이 들려 올려졌는데) 에바 그릇 속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⁸⁾ 그가 말하였다. “이 여자는 악입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에바 그릇 속으로 밀어 넣고 납덩어리를 그 아가리 위로 던져 덮었다. ⁽⁹⁾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두 여자가 나아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는 황새의 날개 같았다. 그들은 에바 그릇을 땅과 하늘들 사이로 들어 올렸다. ⁽¹⁰⁾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말하였다. “저들이 에바 그릇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¹¹⁾ 그가 내게 말하였다. “시날 땅에 그것을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다 준비되면 그것이 제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 V. 주님께 들림 받으려면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며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한다(마 24:32-44, 계 19:7). 그럴 때 우리는 대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계 3:10, 눅 21:36).

[마 24:32-44]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³³⁾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³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³⁵⁾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³⁶⁾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³⁷⁾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⁴⁰⁾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¹⁾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²⁾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⁴³⁾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⁴⁴⁾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눅 21:36]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 A.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 고후 2:10, 시 16:11, 27:8, 43:4, 행 3:19-20, 출 33:14-16, 비교 창 4:16.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시 16:11]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알려 주시리니 /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43:4] 그리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 저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 오, 하나님, 저의 하나님! / 저는 수금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행 3:19-20]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²⁰⁾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임명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출 33:14-1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¹⁵⁾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¹⁶⁾ 이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창 4:16]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였다.

- B. 주님의 나타나심 곧 주님의 돌아오심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곧 주님의 출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 딤후 4:8, 행 26:16, 요 14:21.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행 26: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 C. 데려가지는 사람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일생의 문제이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람으로써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휴거될 수 있도록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 히 6:1, 요 21:15-17, 엡 4:15, 비교 창 5:22-24.

[히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엡 4: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창 5:22-24]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다음,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²³⁾ 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²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D. 휴거될 준비를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져 생명이 자라고 성숙되는 문제이다 — 렘 3:16-17 상, 영한 동변 찬송가 395 장.

[렘 3:16-17]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영한 동변 찬송가 395 장

- 1 주 내 맘에 자라-소서- 주만- 구합니다
주와 날로 더 친-근해- 죄 벗-게 하소서
(후렴) 주 능-력으로 날-마다 내 약함 부-축해
주 빛 나의 어둠- 제해- 죽음- 삼키소서.
- 2 주 영광 빛 내 맘- 비취- 악한- 생각 제해
난 무익하나 주 만유 됄- 늘 가-르치소서
- 3 거룩한 주 영광-의 주- 더 보-게 하소서
기쁨에나 고통-에나- 주 형-상 되도록
- 4 뜨거운 주 사랑-의 불- 내 전-체 덮도록
신성한 능력으-로 날- 붙들-어 주소서
- 5 자아 더욱 감소-되고- 주 내- 생명 되게
주 은혜로 늘 주-님과- 교통-케 하소서

E.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걸려 넘어질 가능성에 대해 매일 경계하면서 조심하며 부주의하지 않는 것이다. 깨어 있는 이들은 분명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이들일 것이다 — 렘 17:7-8, 고후 1:8-9, 빌 3:3, 고전 10:12.

[렘 17:7-8]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⁸⁾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고후 1:8-9]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⁹⁾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전 10:12]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F.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마 24:43-44) 그분의 보물인 그 사람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며(벧전 2:7), 우리의 갈망은 그분께서 우리의 최고의 보배, 우리의 보물이신(고후 4:7)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심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 심지어 보배로움 자체가 되는 것이다(단 9:23, 10:11, 19).

[마 24:43-44]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⁴⁴⁾ 이렇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2: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고후 4: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단 9: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움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0:11]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단 10: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 G. 특별히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새벽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벧후 1:19).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많지 않은 날들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 매일 부흥되고 이기는 이들,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되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한 것이다.

[벧후 1:19]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H.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시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 곧 하나님의 시대적 도구인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시대를 전환해야 한다 — 단 2:28, 계 12:1-5, 14:1-5, 19:7-9, 13-16.

[단 2:28] 그러나 하늘들에는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왕께 알려 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머릿속에 나타난 이상들은 이렇습니다.

[계 12:1-5]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²⁾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³⁾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이 보였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었습니다. ⁽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그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⁵⁾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4:1-5]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²⁾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³⁾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⁴⁾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⁵⁾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계 19:7-9]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⁹⁾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계 19:13-16]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¹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¹⁵⁾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¹⁶⁾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